



◀조계종 21교구본사 송광사는 보조국사의 법맥을 이은 진각국사때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약 180년 동안 16명의 국사를 배출해 승보(僧寶)사찰의 지위를 굳혀왔다. 사진은 16국사의 진영을 봉안한 국사전의 내부 모습.

뿌리 없는 나무 없고 근원 없는 샘 없다.
2천5백여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후 지혜의 등불은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반도까지 흘러왔다.
한국불교 1천6백여년의 역사도 역사의 사막을 가로질러 경을 구하고, 대양의 폭풍을 이겨내며 밤을 구한 선사들의 구도열에 힘입었으며, 깨달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승한 선지식들의 지비심 덕분이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들이 저마다 종조 및

각 종단, 종조-중흥조 선양 사업

중흥조 선양사업에 나섰다. 뿌리 찾기를 통해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외적인 포교사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조계종은 종조(宗祖) 도의국사 후보 학술토론회와 정부가 5월의 문화인물로 지정한 중흥조 보조 지눌(1158~1210) 국사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준비

하고 있다. 또한 중흥조인 태고 보우(1301~1382) 국사 탄신 700주년을 기념하는 대법회와 추모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태고종은 종조 보우국사 탄신 700주년 다례법회와 국가인성 및 발전을 위한 기원법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우국사 법어와 논문집 보급, 북한산 태고사 성역화 사업에 나서고 있다.
천태종 역시 문화관광부가 '11월의 문화인물'로 지정한 종조 대각국사의 천(1065~1101)스님과 관련한 기념예술회와 학술대회를 연다.

'뿌리찾기'로 종단 정체성 확립하자



한국 선종 종조 도의국사

6월 추모학술토론회

한국 선종의 종조로 추앙되는 도의국사는 통일신라 말인 784년 당나라로 건너가 개원사에서 서당 지장(西堂智藏)에게 불법을 이어받은 뒤 귀국, 신라어 선종(禪宗)의 씨를 뿌렸다.
당시 서라벌을 중심의 왕권불교로 대립하며 진보적인 선사상을 전파했던 도의국사는 말년에 설악산 진전사로 들어가 은둔하였다. 이후 도의국사의 사상은 열거화상-보조 체징에게 전해지고 체징은 9산선문 중의 하나인 가지산파를 열어 우리나라 선종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 사상적 일대 전환을 일으킨 대선사임에도 도의국사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행 역사교과서에조차 도의국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조계종이 종원에 종조로 밝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선언적 규정이지 아니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도의국사의 기일인 6월 22일(음 5. 2)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조계종도 의국사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도의국사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조명을 시작한다. 세미나는 국사가 말년에 주석했던 강원도 양양군의 진전사지 복원과 맞물려 더욱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천태종 개조 대각국사 의천

11월 예술제-학술대회

우리나라 천태종의 개조이자 고려대장경을 간행한 의천스님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로, 11세에 영봉사 경덕왕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고려 말 나라로 건너간 스님은 그곳에서 각 불교교파의 교리를 두루 섭렵하고, 1086년 귀국했다.
개경 흥왕사의 주지 소임을 살면서 제자를 양성하는 한편 요송 일본 증지에서 4천여 권의 장서를 수집, 교장도감을 통해 이들 경서를 간행하고 간행 경서 목록인 <신권제종교장총록> 3권을 편찬했다.
1097년 2월 태후의 발원으로 국청사가 낙성되자, 1세 주지가 된 의천스님은 여기서 천태교학을 강의하기 시작했고, 이 때 비로소 고려 천태종이란 종파로 성립된다. 고려의 불교가 교종과 선종으로 갈라져 대립하던 당시에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역설하고, 회암종인 규봉의 학설로 고려의 교종을 통일한 후, 선종의 교리에 입각 천태종을 개창하여 선종을 통합했다.
의천스님을 종조로 받드는 천태종은 오는 11월 예술제와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 지눌과 함께 고려불교의 양대산맥이었던 의천스님을 기리는 조계종단 차원의 추모행사는 아직 없다.



조계종 중흥조 보조국사 지눌

5월 유물전시회·세미나

태고 보우스님과 함께 조계종의 중흥조인 보조국사 지눌스님은 1165년(의종 19) 종휘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182년(명종 12) 승과에 급제했으나 출세를 단념하고 평양 보재사의 담선법회(談禪法會)에 참여했다. 창평 청원사에서 육조스님의 <단경(壇經)>을 읽고 대각한 뒤에도 수도에 더욱 조진했다. 1185년 하가산 보문사에서 <대장경>을 열독하고 선교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공산 거조사에 머물면서 정혜사(定慧社)를 조직하고 <권수정혜결사문>을 발표, 독자적인 사상을 확립하고 불교 쇄신운동에 나섰다. 1200년(신종 3) 송광산 길상사로 옮겨 중생을 떠나서는 부처가 존재할 수 없다고 설파, 본오점수와 정혜상수를 주장하고 선으로써 체(體)를 삼고 교으로써 용(用)을 삼아 선교의 합일을 추구했다. 한편, 의천이 교으로써 선교의 합일점을 모색한 반면, 종래의 구산선문을 조계종에 통합, 종풍(宗風)을 펼쳐 의천의 천태종과 함께 고려 불교 양대산맥의 내면적 통일을 기한 큰 업적을 이룩했다.
조계종은 오는 5월 보조국사 유물전시회(장소는 송광사, '보조국사의 생애와 사상' 주제 세미나/보조사상연구원 주최, 보조국사 유적지 순례 등의 행사를 갖는다.



태고종 종조 원증국사 보우

탄신 7백주년 기념행사

1301년 음력 9월 21일 태어난 원증국사 보우스님은 13세에 화암사 광지스님을 은사로 득도, 가지산에서 수도했다. 1319년 '만법귀일 일귀하쳐' 화두 참구에 전념, 1333년 성서 감로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1329년 화엄선에 합력했으며, 1337년 전단원에 있으면서 '무(無)'자 화두를 참구, 이듬해 대각을 얻었다. 1346년 원나라 연경 대관사에 머물다, 호주 하루산 전호암에 가 석옥정공 선사를 만나 인가를 받고, 입제종을 얻어 그 시조가 되었다. 1356년 왕사가 된 스님은 원흥부를 설치, 구산선문의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선교일체론을 주장, 선과 교를 다른 것으로 보던 당시의 불교관을 바로잡고 불교와 유교의 융합을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양명 사나이는 우리 나라 입제종의 시조이자, 조계종 중흥조인 태고보우 국사의 탄신 700돌을 기념하는 다례제 봉행, 학술세미나, 진영각 건립, 관연유적 문화답사, 왕사 국사 추대식 재현, 보우스님 사상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한다.
김재경 기자 (gkim@buddhania.com)

한국불교의 법통논쟁

법통논쟁은 한국불교 제종단의 종조가 과연 누구이며, 그 종조의 법이 어떠한 형태로 계승되었는가, 또한 그 종지(宗旨)는 무엇인가 하는 등에 대한 문제를 밝히는 작업이다. 이는 곧 조계종 태고종 등 각 종단의 정체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
이러한 법통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30~40년대 접어들어서다. 한암 스님의 '도의종조설'과 석진 스님의 '법일종조설' 등을 비롯 '보조종조설'과 '태고종조설'이 팽팽히 맞섰고, 이후 50~60년대 조계종 정화태고종에서는 '법일'과 관련해 보조나 태고나 하는 문제가 주된 논쟁이었다.
이러한 논쟁의 정점은 청허 휴정 스님의 법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조선왕조의 억불정책으로 법맥의 사자상승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휴정 스님의 법맥은 벽계정심→벽송지암→부흥영관→서산휴정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정심 스님의 법맥이 어디에서 이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정심 스님은 입적에 앞서 '내 법사가 환속했으므로 멀리 구국 각은 스님에게 법을 이으라'고 했다고 전한다.
학계에서는 각은 스님의 법맥이 보우→환암→휴정→각은→정심스님에게 이어졌다는 설과 각진 북구(송광사의 13대 국사)→졸암 연은→각은→정심으로 이어졌다는 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태고 법통설'의 입장에 선 사람들은 대다수의 금석문, 전기 등 사료들이 태고종조설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의 조계(태고)종은 태고보우스님의 문승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종조가 보우스님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조 법통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고종조설이 휴정, 휴정 스님 입적 이후에 사대 모호함에 의해 위착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구산선문을 통합하여 최초로 조계종을 개창한 인물이 보조 지눌스님이라고 보므로 지눌스님이 조계종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단호박마탕

떡유산 영각사에는 어김없이 불이 왔고 박씨 부인이 기도하는 모습은 부드러운 아지랑이보다 더 잔잔한 모습이었다. 주지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박씨 부인의 처성은 결사적이었다. 그러면 어느 날 꿈에 떡유산 자락이 온통 늙은 호박덩이로 덮이는 가운데 굵게 된 호박꽃 사이에서 한 여자가 아기가 박씨 부인 품으로 뛰어드는

꿈을 꾸었다.
꿈을 꾸고 후 박씨 부인의 품에는 태기가 있었고 점점 배가 불러오더니 1574년 9월 3일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에 해산을 했다. 아기는 기다리던 사내아이가 아니라 여식이었다. 아들이 아니라서 못내 서운했으나 딸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며 당시엔 술(麥)을 개라 하였기에 그 자리에서 사

감기·불면증 효과...치매예방도

갑술(甲戌)이니 논개라고 이름을 붙였다. 주는게는 그렇게 태어났다.
왜군의 총병력으로 진주성의 명운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었다. 최경회 장군의 전사소식을 전해들은 논개는 이제 의지할 할도 조국도 없었다. 그 해 7월은 장마비가 억수로 쏟아졌고, 무서운 수마가 냇가를 휘감는 속에서 사람들이 호박냉이를 끓여먹고 물살을 헤쳐 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논개의 두 눈에선 빛이 반짝였다. 왜군들의 전승기념 잔치에서 관기를 소집한다는 소문을 들은 논개, 그녀는 스무살의 아

름다운 몸을 여미고 있었다. 7월의 황토물은 진주 축석루를 삼킬 듯한 기세로 출렁거렸다.
거친 물살 속에서도 곳곳이 버티던 호박냉이처럼 그렇게 논개는 왜장을 끌어안고 자신의 사랑과 조국을 위해 인간으로서 선택하기 어려운 위대한 길을 갔다. 지금도 떡유산 영각사 자락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 더욱 붉고 아리따운 호박꽃이 피고 있다.
■ 약선식 연구가.<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단호박, 올리브유, 조청, 호박씨가루, 잣가루, 통깨
요리법 ① 잘 씻어낸 단호박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물기를 제거한다. ② 130~140℃에서 노릇하게 튀겨낸다. ③ 조청과 물을 5:1의 비율로 해서 한 번 끓였다가 튀긴 단호박을 끓인다. ④ 고명으로 호박씨가루, 잣가루, 통깨를 듬뿍 뿌려서 낸다.
효능 위장이나 약한 사람이나 노인, 산모, 어린이에게 좋다. 감기나 인후통, 불면증에도 효험이 있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